



**남원시,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본격 추진**

남원시는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사업은 인구변화와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혼자 사는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시책으로, 남원시는 지난 2월 14일 한국전력공사와 SK텔레콤과 3차 협약을 맺은바 있으며, 사업을 위해 우선 1,000명분 하반기 서비스이용료 1천9백만원을 시 자체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 이 사업은 전력사용량과 스마트폰 사용패턴이 평소와 다르면 시가 남원시에 알려주는 주계되며,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은 남원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김재하 희망복지지원 팀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 이후 우울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등 경제적 위기와 함께 고독사 위험까지 급증하고 있다"며 "음력동 단위 및 맞춤형복지기능 강화와 함께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여성단체협, 35사단 신병수료식 차(茶) 봉사**

임실군과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한남숙)가 최근 35사단 신병수료식에 참석하는 부모 친자들에게 따뜻한 차와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35사단 신병수료식은 코로나19 이후로 처음 시행한 대면 수료식이며 의미가 더욱 깊었다. 합동 속에서 자랑스럽게 훈련을 잘 마친 훈련병 225명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모 친자들 700여 명에게 차 봉사를 통해 음료 한잔에 감사하다고 되돌아오는 따뜻한 인사로 뿌듯함을 느끼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여건이 여의찮아서 못 오시는 나 홀로 병사들에게는 부모가 되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축하와 응원을 전하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여 부모가 오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고, 자대 배치를 받고 떠나는 신병들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한남숙 회장은 "앞으로도 신병수료식이 있을 때마다 차 봉사와 함께 가족이 오지 못하는 나 홀로 신병수료자들을 위해 하루 부모가 되어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임실=진홍명 기자



**장수읍 지사협, 2차 취약계층 밀반찬(부식) 전달**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기완, 민간위원 장송제기)는 지난 16일 장수읍 여성 의용소방대와 함께 장수읍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취약계층 반찬(부식)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장수읍 여성 의용소방대원은 육개장, 밀치볶음, 장조림, 김치반, 김, 라면 등 12종의 반찬과 부식을 직접 조리하고 포장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취약계층 반찬(부식) 나눔'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혼자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밀반찬을 만들어 전달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전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지난 3월 1차에 이어 2차례에 걸쳐 행사를 진행했다. 송제기 민간위원장은 "무더위와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은 취약계층이 더욱 힘든 계절"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석구석 발로 뛰며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협의체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장수=고광호 기자

**시장 찾아 상인·서민의 목소리 경청**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전통시장안의 매력 맞춤형 지원 방안·인프라 총원 약속**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20일 민생탐방행보로 전주 중앙시장을 찾았다. 우범기 당선인은 이날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와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의 피해와 회복 정도를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손실보전금 등 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 과정에서 누락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청취했다. 우 당선인은 아울러 중앙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자리를 옮겨 상인회가 개최한 '와글와글 가요제'에 참석해 시장상인 및 시민들과 어우러지며 함께 흥을 냈다. 현장방문 첫 행사지로 전주시의 미래산업과 관련한 비너텍을 택한 데 이어, 소상공인과 지역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향후 시정업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 당선인은 "오늘 말씀해주신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시장이 삶의 터전인 상인분들이 전통시장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가져오신다면 언제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원광대 축제 푸드트럭 운영 수익금 초록우산 전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는 20일 청년푸드트럭협동조합(대표 김윤관)으로부터 원광대학교 축제 푸드트럭 운영 수익금 5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수익금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원광대학교 축제 '원광대동계'에서 재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익산지역 주거빈곤 아동들을 위해 기부되었다. 김형중 청년푸드트럭협동조합 이사는 "조합원들과 함께 아동들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어려운 상황의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규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원광대동계를 잘 치러낸 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익산지역 아동들을 돕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청년푸드트럭협동조합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인후1동, '주민과 함께 한여름밤의 향연' 안골콘서트 개최**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동장 송문석)은 지난 17일 자생단체협의회(위원장 전선균), 마을계획추진단(단장 곡민중)과 공동으로 전북은행 안골지점 주차장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인후1동 안골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안골콘서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돼 왔으나, 코로나19로 2년간의 공백기를 갖고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후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풍물, 가요, 하모니카공연과 인후문화의집 프로그램, 색소폰 연주 등 공연이 펼쳐졌으며, 한여름 밤의 향연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여름날의 열기를 식혀줄 힐링콘서트가 펼쳐졌다. 전선균 주민자치위원장은 "안골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해주신 인후동 자생단체협의회 및 마을계획추진단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며 "안골콘서트가 주민 간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다고 할까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의 문화의 장으로써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비전대 한국어센터, 연수생 체육대회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성모)는 최근 외국인 유학 연수생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중국·미얀마·몽골·대만·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180여 명의 비전한국어센터 연수생들이 참석했다. 개회선언과 선수대표선서를 시작으로 단체별 출발기 △제기차기 △무자개출대리기 △협동종아물달리기 △애어로빅 경진대회 △인간 고리던지기 △바구니게임 △신발봉구 등 경기가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창조, 성실, 봉사, 미래 등 4개 팀으로 나눠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이번 체육대회를 위해 쌀, 화장지, 수건, 라면, 햄, 식용유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경품으로 준비했다. 비키(대만)씨는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면서 "다른 나라 친구들과 같이 더욱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효숙 국제교류원장은 "유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 하고 다국적 학생들의 교류와 협동심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양현초·중 학생회·학부모회, 환경정화 캠페인 전개**

전주양현초·중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는 지난 18일 만성지구 일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만성지구 전체를 돌며 공원과 도로의 쓰레기 등을 치우는 '환경정화 활동'과, 성장기 학생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 '거리 흡연 자제' 홍보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양현초·중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중심이 돼 각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받아 4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다. 특히 지자체가 아닌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가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하는 활동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전주양현초·중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에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시간이 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한 양현초·중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는 앞으로 만성지구의 깨끗한 생활 환경과 건강한 시민의식을 위해 관할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해 더욱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드림스타트, '안경지원'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안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평을 얻고 있다. 안경지원은 저시력으로 신규 안경착용이 필요하거나 안경 착용 중 교체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경지원을 통해 시력을 안정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안경 지원이 필요한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8월 7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작년 이어 올해도 관내 안경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 아동들은 안과 검진 후 업체 내방을 통해 자신의 시력에 맞는 안경을 지원받게 된다. 주민복지과 안병삼 과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정기 검사로 안구 건강을 유지하고 안경을 교체해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완주군, 세계헌혈자의 날 연계 홍보활동**

완주군이 코로나19 상황으로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헌혈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20일 완주군 보건소는 세계헌혈자의 날과 연계해 최근 4일간 헌혈과 장기기증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혈액 수급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해 200여명정도 줄어든 1600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완주군 보건소는 헌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올해 2월과 4월에 완주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을 추진하는 등 헌혈수급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군 보건소는 이동버스로 단체헌혈을 추진하거나 주민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등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지속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남원시, 검정고시 응시 대리접수 지원**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20일부터 22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대리접수 지원을 실시한다. 대리접수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남원시 충정로2 3층)을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분증(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최종학력증명서(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1부 △여권사진(3.5\*4.5) 2매이다. 직접 원서접수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일부터 24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에 접수하거나, 나이시검정고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꿈드림(063-633-1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청소년복지 위한 실무위원회 진행**

남원시 사업 위탁 기관인 CYA가 운영하는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6일,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연계활성화를 위해 협력기관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제2차 실무위원회의를 각 기관 실무담당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소개와 위기청소년의 상담사례에 대해 논의하였고,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협력 및 연계방안 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서의 기관 협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2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아동차이건강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더욱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633-197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